청소년부 리딩지저스

44 주차

2026 11월 2일 (월) ~ 11월 7일 (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마태복음 22:9

만나는 대로 청하라

진도 이번 주 읽을 곳, 읽으면 체크

☐	월	11.2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화	11.3	누가 18장, 마태 19장, 마가 10장	
☐	수	11.4	마태복음 20~21장,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	목	11.5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	금	11.6	마태 22장, 마가 12장, 마태 23장	
☐	토	11.7	누가복음 20~21장, 마가복음 13장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나눔 나의 말씀메이트

이번 주 말씀메이트는?



언제, 어디서 나눌까?
예: 수요일 밤 9시 카톡 통화, 주일 예배 뒤 10분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OPENING

여는 글

존경하는 리딩지저스 성경통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월요일에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화요일에는 재판장의 문을 밤낮 두드리는 과부를 만나고, 수요일에는 돌무화과나무 위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목요일에는 나드 향유 냄새가 가득한 베다니의 저녁을 지나고, 금요일에는 다 차려 놓은 혼인 잔치의 초청을 듣습니다. 토요일에는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주님과 함께 바라봅니다.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에서는 화요일에 읽는 과부의 비유로 함께 기도합니다(기도하고 낙심 말라, 눅 18:1-8). 다음 주일은 새생명축제를 한 주 앞둔 준비주일입니다. 금요일에 읽는 혼인 잔치 비유를 강단에서 다시 펼칩니다(만나는 대로 청하라, 마 22:1-10). 11월 15일 새생명축제에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잔칫상은 이미 차려졌고,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그 상에 앉히시고, 이제 네거리로 보내십니다. 이번 주, 초청받은 기쁨을 안고 초청하는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에 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오종향 목사 드림

THIS WEEK

이번 주 한눈에, 한 주 체크

하루를 마치며 한 일에 체크하세요

	본문을 읽었다	묵상을 글로 썼다	본문으로 기도했다	카톡으로 나누었다	말로 이야기했다
11월 2일 (월)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	☐	☐	☐
11월 3일 (화)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	☐	☐	☐	☐
11월 4일 (수) 마태복음 20~21장;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	☐	☐	☐	☐
11월 5일 (목)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	☐	☐	☐	☐
11월 6일 (금)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	☐	☐	☐	☐
11월 7일 (토) 누가복음 20~21장; 마가복음 13장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	☐	☐	☐	☐

MY WEEK

이번 주 체크한 칸 _____ / 30

지난주보다 한 칸이라도 늘었다면 충분합니다.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날 다시 걸을 자리입니다.

THIS WEEK WORSHIP

기도하고 낙심 말라 — 금요기도회 11/6 (금)

만나는 대로 청하라 — 주일예배 11/8 (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11:6).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11:17).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흘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똑같은 말로 주님을 맞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11:21, 32).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나흘 동안 두 자매가 서로에게 되뇌었을 문장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병원에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험 전날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원망 섞인 그 말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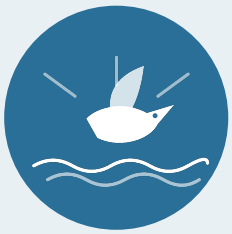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적습니다(11:33). 원어는 분노로 콧김을 내뿜는 모습을 그리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울린 죽음에게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11:43). 그날부터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11:53).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이 우리 대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11:25).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래 덮어 둔 "그랬더라면" 한 문장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아래에 주님의 질문을 적으십시오. "이것을 네가 믿느냐"(11:26). 내일 아침 그 종이를 다시 펴고 마르다처럼 대답합시다. "주여 그러하외다"(11:27).

말씀에 응답하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월 2일 (월)



1 배움 성경 요약

오늘 본문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적어 보십시오.

2 위로 성경 필사

마음을 어루만진 구절을 옮겨 적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남기십시오.

3 한 걸음 실천과 기도

☐ 걸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디딜 작은 한 걸음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11월 3일 (화) |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18:1).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했습니다(18:3). 재판장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며 결국 들어주었습니다(18:5).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원어는 눈 밑을 쳐서 멍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편들어 줄 남편도, 손에 쥐여 줄 돈도 없습니다. 가진 힘은 두 발과 목소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문 앞에 섭니다. 몇 해째 기도 목록 맨 위에 같은 이름을 적어 둔 분이 계십니다. 몇 번을 말해도 그대로인 친구 사이에 지친 학생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그 재판장을 닮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찮아서 들어주는 재판장도 끝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를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18:7).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우리가 끈질겨서 응답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셔서 응답받습니다.

오늘 저녁, 오래 붙든 기도 제목 하나를 고르십시오. 휴대폰 알람을 하나 맞추고 이름을 "하물며"라고 붙여 보십시오. 금요일까지 알람이 울릴 때마다 3분, 그 한 가지를 두드립시다. 그리고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에서 이 과부와 함께 섭시다(기도하고 낙심 말라, 눅 18:1-8).

말씀에 응답하기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11월 3일 (화)



1 배움 성경 요약

오늘 본문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적어 보십시오.

2 위로 성경 필사

마음을 어루만진 구절을 옮겨 적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남기십시오.

3 한 걸음 실천과 기도

☐ 걸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디딜 작은 한 걸음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습니다(19:3). 그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은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19:4-5).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깨끗하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19:7).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까치발을 들어도 사람들 어깨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체 사진 끝자리에서 얼굴이 반쯤 잘려 나온 날, 회의에서 내 말만 묻힌 날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벗어 두고 나무에 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래에서 멈추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어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시고(18:25),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18:27). 오늘 부자 삭개오가 그 바늘귀를 통과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19:9).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랐고, 주님은 삭개오를 살리려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셈을 새로 했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자복하고 갚을 때 오분의 일을 더하라 했는데(민 5:7), 삭개오는 네 갑절을 약속했습니다(19:8). 오늘 저녁, 미뤄 둔 빚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돌려주지 못한 물건이든 하지 못한 사과든, 내일 정오가 되기 전에 그 하나를 갚읍시다.

말씀에 응답하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11월 4일 (수)



1 배움 성경 요약

오늘 본문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적어 보십시오.

2 위로 성경 필사

마음을 어루만진 구절을 옮겨 적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남기십시오.

3 한 걸음 실천과 기도

☐ 걸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디딜 작은 한 걸음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11월 5일 (목) |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12:1-2).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12:3).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따졌습니다(12:5). 어제 읽은 품꾼의 하루 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마 20:2), 삼백 데나리온은 한 해 품삯입니다.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향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셈을 시작합니다. 저 돈이면 몇 사람을 먹일 텐데.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비웃음을 산 날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학생은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하는 말을 듣고, 섬기는 어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 편에 서십니다. "그를 가만 두어"(12:7).

마리아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눅 10:39), 오라버니를 잃고 울 때(11:32), 그리고 오늘 향유를 부을 때입니다. 주님은 그 향유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12:7).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고, 며칠 뒤 주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12:24).

내일 아침에는 휴대폰을 켜기 전 10분을 주님 발 앞에 부어 드려 보십시오. 알림을 열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펴고,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소리 내어 읽고, 한 문장으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셈하지 않고 드리는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월 5일 (목)



1 배움 성경 요약

오늘 본문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적어 보십시오.

2 위로 성경 필사

마음을 어루만진 구절을 옮겨 적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남기십시오.

3 한 걸음 실천과 기도

☐ 걸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디딜 작은 한 걸음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11월 6일 (금) |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3장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셨습니다(22:2). 당시 잔치는 먼저 날을 알리고, 상이 차려지면 다시 종을 보내 불렀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 보지도 않고" 밭으로, 사업하러 갔습니다(22:5). 임금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습니다(22:9). 네거리 길은 성안 큰길이 끝나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22:4) 오기만 하면 됩니다. 종들은 길목까지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22:10). 초대 명단에 내 이름이 없던 분, 어디에도 끼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임금은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청하셨습니다.

같은 날 읽는 마가복음에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막 12:6-8). 잔치의 주인공이신 아들이 성 밖 십자가에서 먼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 문이 네거리까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앉은 자리가 아닙니다. 임금이 청하셔서 앉은 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9:9).

오늘 밤 금요기도회에서는 화요일에 읽은 과부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기도하고 낙심 말라, 눅 18:1-8). 이번 주 만난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을 카드 한 장에 적어 오십시오. 그 이름을 들고 낙심하지 않고 두드립시다. 주일 말씀도 이 잔치의 초청입니다(만나는 대로 청하라, 마 22:1-10).

말씀에 응답하기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11월 6일 (금)



1 배움 성경 요약

오늘 본문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적어 보십시오.

2 위로 성경 필사

마음을 어루만진 구절을 옮겨 적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남기십시오.

3 한 걸음 실천과 기도

☐ 걸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디딜 작은 한 걸음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11월 7일 (토) | 누가복음 20~21장; 마가복음 13장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셨습니다(20:47). "눈을 들어" 헌금함을 보시던 주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21:1-2). 렙돈은 가장 작은 동전으로, 두 렙돈이면 일꾼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21:3).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두 렙돈이 헌금함에 떨어집니다. 부자들의 묵직한 헌금 사이에서 아무도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픈 아이 곁을 지킨 새벽, 표 나지 않는 집안일, 남의 이름으로 올라간 보고서, 칭찬이 늘 다른 친구에게 가는 교실. 주님은 액수를 세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21:4). 며칠 뒤 이 성전 뜰을 떠나신 주님도 전부를 내주십니다. 옷도, 이름도, 목숨도.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우리가 드린 두 렙돈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주신 전부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드림도 기쁨이 됩니다.

내일은 새생명축제를 한 주 앞둔 준비주일입니다(만나는 대로 청하라, 마 22:1-10). 초청은 두 렙돈처럼 작아 보입니다. 문자 한 통,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 주님은 그 작은 초청을 다 보십니다. 오늘 저녁, 어제 카드에 적은 세 이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잔치에 함께 가요."

말씀에 응답하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1월 7일 (토)



1 배움 성경 요약

오늘 본문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적어 보십시오.

2 위로 성경 필사

마음을 어루만진 구절을 옮겨 적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남기십시오.

3 한 걸음 실천과 기도

☐ 걸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디딜 작은 한 걸음과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CALENDAR

12월 31일까지, 함께 걷는 길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44 주차	11/2 눅 17, 요 11	11/3 눅 18, 마 19, 막 10	11/4 마 20-21, 눅 19	11/5 막 11, 요 12	11/6 마 22, 막 12, 마 23	11/7 눅 20-21, 막 13	11/8 만나는 대로 청하라
45 주차	11/9 마 24-25	11/10 마 26, 막 14	11/11 눅 22, 요 13	11/12 요 14-17	11/13 마 27, 막 15	11/14 눅 23, 요 18-19	11/15 새생명축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46 주차	11/16 마 28, 막 16, 눅 24, 요 20	11/17 요 21, 행 1-2	11/18 행 3-5	11/19 행 6-8	11/20 행 9-10	11/21 행 11-13	11/22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47 주차	11/23 행 14, 약 1-5	11/24 행 15-16, 갈 1	11/25 갈 2-5	11/26 갈 6, 행 17, 살전 1-4	11/27 살전 5, 살후 1-3, 행 18	11/28 행 19, 고전 1-4	11/29 강림하실 때까지
48 주차	11/30 고전 5-8	12/1 고전 9-12	12/2 고전 13-16	12/3 고후 1-5	12/4 고후 6-10	12/5 고후 11-13, 롬 1-2	12/6 어둠에 빛이 비치라
49 주차	12/7 롬 3-6	12/8 롬 7-10	12/9 롬 11-14	12/10 롬 15-16, 행 20-21	12/11 행 22-24	12/12 행 25-27	12/13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50 주차	12/14 행 28, 골 1-3	12/15 골 4, 몬, 엡 1-3	12/16 엡 4-6, 빌 1-2	12/17 빌 3-4, 딤전 1-4	12/18 딤전 5-6, 딛 1-3, 벧전 1	12/19 벧전 2-5, 히 1	12/20 크도다 경건의 비밀
51 주차	12/21 히 2-7	12/22 히 8-11	12/23 히 12-13, 딤후 1-2	12/24 딤후 3-4, 벧후 1-3, 유	12/25 요일 1-4	12/26 요일 5, 요이, 요삼, 계 1-2	12/27 송년 선한 싸움 다 싸웠네
52 주차	12/28 계 3-8	12/29 계 9-13	12/30 계 14-18	12/31 계 19-22			12/31 송구영신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HOW TO READ

1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어요 2 오른쪽 면에 요약, 필사, 기도를 적어요 3 카드 4장으로 하루를 다시 붙들어요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 캘린더에서 오늘 날짜를 찾아 그날부터 다시 걸으면 됩니다.